

The 2nd KWS-JWS Joint Symposium for Young Researcher 참가보고 Review of the 2nd KWS-JWS Joint Symposium for Young Researchers

박영도*, 강남현**, 신상범***, 우인수****, 천창근*****

- *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 생산기술연구원 정밀접합용접팀
- ***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 **** POSCO 기술연구소
- ***** RIST 용접센터

(사)대한용접학회 대표 젊은 과학자 5명은 2006년도 4월 일본춘계용접학회 기간 중 일본측 대표 5명과 함께 2nd KWS-JWS Joint Symposium for Young Researchers 에 참가하였다. 이 Symposium은 용접분야의 학술대회로서 매년 한 차례에 걸쳐 열리는데, 이번 Symposium은 2005년 6월 한국 개최된 제 1차 모임 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린 Symposium으로 용접 및 관련 분야의 주제로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측 대표는 학교, 연구소, 산업체에서 골고루 5명이 참여하였고 일본측에서는 WELNET의 member중 5명이 참가를 하였다. 심포지엄은 10편의 논문 발표 후 약 2시간에 걸친 Evening Symposium을 통해 한국 및 일본의 용접기술 동향 및 향후 심포지엄의 발전 방향등에 관한 토의로 진행이 되었다. 아래의 안건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심포지엄의 확대에 관한 주제의 토의가 있었다.

1. 2007년 한국용접학회(KWS) 춘계학회 기간 중 제 3회 KWS-JWS Symposium 개최합의
2.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 용접학회쪽도 심포지엄에 포함을 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다른 국가도 참여의사가 있다면 2007년 Symposium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참석하는 형태의 모임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일본측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은 일본 중심의 “Global Network of Young Researchers and Engineer”을 구축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조직 체계에 있어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그림2와 같은 체계)

4. 현재 일본측 대표들은 WELNET 멤버 중 대표를 5명씩 뽑아서 참가하고 있으나 일본 WELNET의 멤버가 거의 대학중심이어서 서로간의 관심분야가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존재 하여서 2007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측 대표로 회사 및 연구소의 연구원도 참여를 유도하기로 합의함.

